https://doi.org/10.54269/AKSS.2024.02.48.341

‘복수(復讐)’의 관점으로 본 <유정승따님애기> 서사 고찰*

신연우**

[요약]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를 읽어나가다 보면, 유정승따님애기 서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는 악인의 악행에 고통을 겪는 선인의 사연과 함께 그 악인에게 행해지는 복수로 이야기의 결말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정승따님애기 서사는 제주도 본풀이에서 대단히 예외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조점을 발판으로 하여 유정승따님애기 서사의 의미를 천착해 보았다.

무속은 작게는 현세에서 잘 살자는 현실적 종교이고 크게는 인간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 생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철학적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복수는 어디에 자리하는 것일까?

유정승따님애기 무가는 제주도 무속에서 복수의 단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 무가는 심방의 조상이 된 유정승따님애기의 본풀이이다. 유정승따님애기가 그랬듯이 후대의 심방들도 같은 심사를 갖겠다고 한다. 심방이 되는 것을 ‘전생팔자를 그르친다’고 한다. 유정승따님애기가 죽어가는 아기를 되살아나게 한 것과 같이, 억울하게 펼쳐지는 자기 삶이지만 그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심방이 되어,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굿을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유정승댁따님애기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신병을 앓고 죽어가게 되었던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무당이 된다. 무당이 되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됨(과제번호: U2023-012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것이다. 자기를 내어주어 남을 살리자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제주도 대다수의 본풀이에 보이는 복수담은 제주도민의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다.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진보하면서 사회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의 복수를 사회가 처리해달라고 넘겼다. 제주도는 조선의 통치를 받았지만 법치보다는 개인적인 복수가 더 만연되었을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유정승댁 따님애기 이야기나 바리데기 서사는 복수가 아닌 희생을 말하는 서사이다.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은 문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류 집단에 공통적으로 출현했다. 유정승댁따님애기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해서 유교나 불교 윤리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제주도에서도 이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제주도, 무속신화, 초공본풀이, 유정승댁 따님애기, 복수, 희생과 사랑

Ⅰ. 머리말

필자는 오랫동안 '유정승따님애기' 서사에 관심을 가져왔다. 〈초공본풀이〉 후반에 부록처럼 서술되는 그 이야기의 정체가 무엇일까? 심방에 따라 이 이야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주 간략히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초공본풀이〉에 필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초공맞이〉 제차에도 유정승따님애기가 자리하는 곳은 없다.

이에 대해 최시한은 '심방선생'의 본풀이가 따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특이하다고 지적하였고[1], 문봉순도 이에 동의하면서 신령이 겪은 것을 심방이 모방하여 초월적 능력을 얻게 하는 이야기로, 잿부기 삼형제가 무조신이 된 유래를 〈초공본풀이〉가 풀어낸다면 유정승따님애기 신화는 심방의 유래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고[2] 이는 충분히 수용될 만한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유정승따님애기가 겪은 일방적이고도 처절한 시련이 너무 크기에 나로서는 아직 이 신화의 의미가 다 풀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심방의 삶이

1)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집』(배달말학회, 1986), 11~12쪽.
2)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7쪽.

근본적으로 그런 비극적 슬픔을 갖게 마련인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으나, 유정승따님애기가 굳이 양반의 후손으로서 정승의 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더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구송본에서는 삼형제가 양반의 원수를 갚는 연장선에서 유정승따님애기의 팔자를 그르치게 했다고 한다. 그 까닭으로 유정승따님애기는 일곱 살에 눈이 멀게 된다. 유정승따님애기의 고통은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어린 아이에게 흉험을 주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팔자를 그르치는 신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가? 유정승따님애기는 그저 참고 아무런 저항 한번 없이 자기 팔자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제시하는 신화적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를 읽어나가다 보면, 유정승따님애기 서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는 악인의 악행에 고통을 겪는 선인의 사연과 함께 그 악인에게 행해지는 복수로 이야기의 결말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제주도 본풀이 서사 구조의 특징적 면모와 대조되는 유정승따님애기를 이해할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 그 의미를 더 추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고 보면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정승따님애기 서사는 제주도 본풀이에서 대단히 예외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조점을 발판으로 하여 유정승따님애기 서사의 의미를 천착해 보기로 한다.

Ⅱ. 제주도 본풀이에 보이는 복수의 양상

먼저 일반신 본풀이에서 악행과 그 복수가 서사의 주요 내용이 되는 자료를 확인하자.

(1) 〈초공본풀이〉 : 잿부기 삼형제를 어린시절부터 괴롭히던 삼천서당 선비는 과거에 합격한 것을 무효화하기도 하고 급기야 삼형제의 어머니를 죽인다. 안사인 구송본에는 이렇게 노래한다. "노가단풍아기씨는 삼천선비가 물멩지 전대로 목을 걸련 삼천전저석궁 지픈 궁에 가두우고, 느진덕정하님은 머리 풀언 찝으로 머릿목을 무꺼네 아이고 대고 울어가명 삼성제 앞을 가, 상전님덜아 상전님덜아 어멍국은 죽어네 앞의 출병만 허여둔디 과걸ᄒᆞ민 뭣하리까?"[3]

결국 삼형제는 과거를 버리고 황금산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어머니를 살려 신으로 좌정시키고, 양반의 원수를 갚는다. "양반의 원술 가프젠 삼시왕으로 올라간다. …… 이른닷단칼로 시왕대반지를 무어 삼천선비 양반의 원수를 가팠수다."(174쪽) 이어서 대부분의 구연본에서, 양반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삼형제가 유정승 따님애기의 팔자를 그르친 것으로 그리고 있다.

(2) 〈이공본풀이〉 : 어머니 원강아미를 겁탈하려다 실패하고 죽인 제인장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달아나 서천꽃밭의 아버지 원강도령을 찾아간 할락궁이는 수레멜망악심꽃을 가져와 장자네 식구를 다 죽이고 어머니를 되살린다.

(3) 〈삼공본풀이〉 : 삼공본풀이는 복수의 서사가 아니다. 다만 가믄장아기가 집에서 쫓겨날 때 기뻐하며 빨리 나가라고 한 언니들을 지네와 버섯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작은 삽화가 있는 정도이다.

(4) 〈차사본풀이〉 : 강림도령이 저승에 다녀오게 되는 이유가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버무왕의 삼형제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한 과양셍이각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삼형제는 이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잘 자라고 일거에 과거 합격하여 큰 잔치를 벌이던 중 모두 급사하여 일차적 복수를 한다. 과양셍이 딸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원님에게 송사를 걸고 원은 강림이를 저승에 보내 염라대왕을 데려오게 한다. 지상으로 잠시 온 염라대왕은 과양셍이 각시의 아들들이 자기가 죽인 삼형제였음을 알게 되고 살인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169쪽.

자는 죽어서 모기 각다귀로 환생한다. 염라는 뼈만 남은 삼형제를 되살려낸다. 이는 복수의 연쇄로 이루어진 거대 서사이다.

⑸ 〈세경본풀이〉 : 자청비와 문도령이 인연을 맺고 이어나가는 내용이지만 그 한 부분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하인 정수남을 자청비가 죽였다가 부모님 꾸중을 듣고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어서 악인을 징치하는 자청비의 위기와 극복이 잘 그려지지고 하였다. 삼공본풀이와 함께 복수가 주된 내용이 아닌 본풀이이다. 세경맞이에서도 잘 보여지듯이 이는 결국 농사와 목축이 잘 이루어져서 풍년을 기원하자는 내용이기에 위기 속에서도 화합으로 끝맺는 결말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⑹ 〈문전본풀이〉 : 문전신의 유래담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복수의 서사이다. 남선비를 속여 배를 뺏고 찾아온 남선비의 부인을 살해했으며 일곱 형제의 간을 내달라고까지 했던 노일제대귀일의딸은 결국 지혜로운 막내 녹디셍인의 활약으로 정체가 드러나 변소간에서 죽어 변소간 신이 된다. 녹디셍인은 집을 지키는 문전신으로 좌정한다. 특이한 점은 노일제대귀일의딸의 사체가 부분부분 나뉘어 해초, 조개, 물고기, 각다귀 모기 등이 되었다는 것이다.

⑺ 〈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 이들은 해산을 돕는 신들에 대한 신화이다. 인물간에 갈등을 겪지만 결국은 서로 화해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잘 양육하자는 이야기이므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좋은 마음'을 먹자고 권한다.

⑻ 〈칠성본풀이〉 : 책임한 중의 아이를 갖게 되어 집에서 쫓겨난 장설룡의 딸이 무쇠함에 담겨 제주도로 와서 해녀들에게 발견되고 해산을 했는데 7마리 뱀이었다. 이 뱀들이 제주도 각지로 흩어져서 섬겨지게 된 사연을 담은 신화이다. 이들은 인간들이 잘 대접하면 액을 막고 '재수 신수망을 나수와' 주고, 무시하거나 해코지하면 그대로 보복을 하는 신이다. 아무 이유없이 겁탈당하고 새끼들은 더럽게 여겨지는 뱀으로 태어난다는 설정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삶을 극적으로 제시한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신이 되었다 해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받은대로 대접

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9) 〈사만이본풀이〉 : 을 하던 길에서 백년해골을 발견하여 집으로 모셔와 조상신으로 잘 대접한 사만이는 부자가 된다. 조상신은 수명이 다한 사만이를 위해 저승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잡아가게 해 준다. 조상신을 잘 모시면 복이 오며 그렇지 않으면 화가 온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10) 〈천지왕본풀이〉 : 늘의 천지왕에 저항하고 인간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수명장자를 천지왕이 내려와 징치한다. 그 집을 불태우고 자식들은 벌레 등으로 환생시킨다. 천지왕의 두 아들은 인세차지 경쟁을 하다가 동생에게 시달린 대별왕이 불만 속에 저승으로 물러난다. 이 신화 구연의 이면에는, '소별왕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게 되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지장본풀이〉 : 하게만 살지만 어려서부터 모든 가족이 다 죽고 친척에게는 온갖 구박을 받던 지장아기씨는 결국 죽어서는 사람들을 해코하는 새(邪)가 된다. 지장아기씨의 팔자가 원래 그랬다고 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처참한 삶에 대한 복수의 염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억울한 희생에 대한 복수 이야기가 많다. 인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들도 복수를 한다. 신이 되어도 복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복수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공본풀이〉의 잿부기 삼형제가 신이 되어서도 양반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유정승따님애기를 무당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화소가 본고의 논의를 시작하게 하였다.

유정승따님애기 서사는 초공본풀이의 삼형제가 신이 되어 삼시왕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종결된 뒤에 이어진다. 1. 삼형제가 유정승따님애기가 양반의 딸이라 팔자를 그르치겠다며 준 엽전을 받는다. 2. 신병이 들어 7살부터 67살까지 생사를 거듭하다가 77살에 굿법을 배워 심방이 된다. 3. 삼시왕에 걸려 죽은 장자집 외딸아기를 굿을 해서

살려낸다. 4. 삼시왕에서 굿법을 배우고 심방이 되어 천하를 울린다. 박봉춘 본 외에는 대체로 이러한 경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양반의 딸이라는 이유로 7살난 여자애가 평생 병에 시달리다가 무당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삶이 망가진 여성에게 무당이 되어 남을 돕고 살아라는 식의 자기희생의 서사로 해석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지금도 종종 '해원굿'이라는 이름으로 굿이 치러지기도 하기에 맺힌 원한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무속적인 사고라고 여겨질만도 하다. 이럴 경우,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다소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복수도 선명하게 그려진다.

또한 육지의 〈초공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석본풀이〉 또는 〈당금애기〉에서는 그와 같은 복수 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제석본풀이〉 유형에서는 겁탈을 당한 당금애기나 어린 시절 수모를 겪은 삼형제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서 신직을 부여받는 것으로 종결된다[4] 어디에도 복수를 하겠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혹시 복수의 화소가 제주도 서사무가의 특징적 면모가 될 수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Ⅲ. 복수에서 자비로의 변화

고대에는 복수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5] 함무라비 법의 "눈에는 눈으로"라는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 고조선의 '팔조금법'의 첫 항은 살인에 대한 것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6]라고 했다. 부여의 경

4)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 1988), 30~1쪽.
5)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보통 보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아직 인과응보나 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수라기보다는 사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수준의 응징을 가한다고 하는 오래된 사고방식의 반영으로 여겨진다.
6) 『한서』「지리지」, 이민수 역 『조선전』(탐구신서67, 탐구당, 1986), 29쪽.

우에도 “형벌을 쓰는 것은 몹시 엄하고 급하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집 식구들을 데려다가 노비를 삼는다.”[7]고 했다. 도둑질에는 12배를 물도록 했다.

조선조에서도 정당한 복수는 ‘義殺’이라고 해서 용인되었다. 18세기의 다산 정약용도 “국가의 공(公)형벌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의로운 사적 폭력을 부정하지 않았다”[8]고 한다. “불효, 불우, 패역, 음란 등 죽을 만한 죄를 응징한 경우만 의살이라고”[9]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신라 시대에 복수에서 벗어난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처용〉 설화이다. 주지하다시피 처용은 아내를 빼앗은 역신에게 분노하지 않았다고 한다. 疫神은 “공의 아내를 탐내어 범하였는데 공이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탄하고 찬미한다(公不見怒 感而美之)”[10]고 했다. 역신의 감탄은 처용이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는 5세기 소지왕이 간통한 궁인을 활로 쏘아 죽인 일과 대조된다.[11] 처용 기사가 그토록 인상적인 이유는 당연해 보였던 복수를 하지 않은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의 『經國大典』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했다. 이는 “죄와 형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법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권력 이외에 관습법이 형벌권 행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12]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것이다. 이는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형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

7) 『삼국지』「동이전 부여」, 이민수 역, 『조선전』, 79쪽.
8) 김호,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 茶山의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4(한국역사연구회, 2012), 360쪽.
9) 김호,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 茶山의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339쪽.
10) 『삼국유사』, 「기이2」, 〈處容郎 望海寺〉條
11) 김호,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 茶山의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167쪽.
12) 김태계, 「조선시대의 人命에 관한 죄의 종류와 그 형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권 4호(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7쪽.

이렇게 보면 역사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가 이루어지던 단계를 벗어나 복수를 국가에 위임하게 된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형법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가 대신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법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개인적 복수를 멈추기 또는 복수에서 벗어나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보이는 복수담은 개인적 복수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셍이딸년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염라대왕을 불러오기 위해 사또에게 진정한 것 정도가 가장 법에 가까이 간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공적인 느낌보다는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제도와 저승까지 움직인다는 무속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무속은 아직 복수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미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복수극은 다채롭게 펼쳐진다. 아예 복수극의 향연이라고 할 만하다. 대표적인 것이 아가멤논의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와 아들 오레스테스 신화이다. 트로이전쟁에 나가느라고 딸 이피게니아를 죽인 남편을 정부의 손을 빌려 죽이자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감행한다. 트로이전쟁 자체가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리스 차원의 복수담이다. 오디세우스는 아내 페넬로페를 넘보는 이타카의 남자들을 대량 학살한다. 신만 못지않다고 자랑한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차 없이 죽임을 당한다. 신들은 자신뿐 아니라 인간들의 복수도 부추긴다.

이런 신화적 차원의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유정승 따님애기 화소는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도는 근대에 들어서도 무속과 신화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잿부기 삼형제가 신이 되어서도 양반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고 있는데 반해, 당사자인 유정승 따님애기는 7살부터 이유도 없이 눈이 멀고 몸이 아프고 하여 전생팔자를 그르치고 심방이 되었지만 일체의 원망이나 복수의 심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점

은 다른 서사무가들과 이질적이다. 이 이질성이 유정승 따님애기 화소를 낯설게 하여 초공본풀이에 붙기도 하고 떼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유정승 따님애기 무가만 따로 불리지는 못했다. 유정승 따님애기 서사만 따로 발전했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자기의 희생에 대해 복수하지 않는 주인공의 독립적 서사가 가능했을까?

무가에서 그런 주인공의 대표적인 인물은 육지의 서사무가 〈바리공주〉일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바리공주 또는 바리데기는 일곱 번째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는다. 갓난아기 때 버림을 받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지만 그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승으로의 여행을 감내한다. 자기 생을 버리고 저승에 다녀옴으로써 부모는 회생했지만 자신은 죽은자의 세상에 머무는 신이 된다.

바리데기는 어떻게 자기희생을 순순히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속 서사의 발전이었을까? 아마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자비의 사상이 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바리공주의 희생은 아직 충분히 발전된 사상은 아니다.

그 점은 『구약성서』의 유태교와 『신약성서』의 예수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구약에서는 복수하는 신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웃 가나안 청년에게 겁탈당하자 속임수를 써서 그 마을로 쳐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재산을 모조리 약탈하였다.(창세기 34장) 시편 94편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한다. 예수가 태어날 즈음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에 신음하고 있었고 수많은 항쟁이 있었다. 예수에 대해서도 로마에 저항하여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기대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다의 배신도 그 점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수에게 신적 능력으로 유

대의 복수를 해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예수의 대답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유대인이 예수를 로마 군대에 넘겨버린 것은 이에 대한 실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예수가 말한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마태 5장) 라는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은 온 세계로 전파되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마리아인이 도운 것처럼 낯선 사람과 이방인까지도 돕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불교에서도 '자비'의 사상이 공식화된 것은 약 1세기 때 대승불교가 생장하면서였다고 한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초기 불교는 무엇보다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 안정(니르바다,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이나 『숫타 니파타』는 모두 마음의 안녕과 평화가 수행의 목표였다. 『숫타 니파타』의 첫 장은 분노를 억누르기, 애욕을 끊기, 애착을 말려버리기,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등을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하라고 한다.[13] 여기까지는 자기 구원의 세계이다. 소승불교의 목표인 아라한과 달리, 대승불교에 와서 보살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자기희생을 토대로 하는 자비로운 존재가 불교의 대표적 관념이 된다.[14] 원한을 복수로 갚아 마음을 달래던 단계를 지나,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단계,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주는 인간상을 제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형은 문명권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문명권 기독교의 사랑, 인도 문명권 불교의 자비,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 유교의 仁 정도가 보편적 인간애의 사상을 정립했다고 보인다. 이들이 해당 문명권의 여러 나라에 수용이 되어 그 나라가 문명국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바리공주 무가의 바리공주는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효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말하지는 못했다.

---

13) 김운학 역, 『숫타니파아타』(범우사, 1988), 11쪽.
14) E. 콘즈, 한형조 옮김,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세계사, 1990), 177쪽.

더욱이 인간 보편에 대한 사랑까지 가지 못했다. 무속이 보편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보편적 인간애 사상을 만든 건 아니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한탄할 것은 아니다. 유교의 인과 불교의 자비를 수용하여 문명권의 인류애 사상을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었기에 새로이 보편 윤리를 정립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Ⅳ. 무속과 복수

태초의 무속이 제천행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부터 무속은 복수의 종교는 아닐 것이다. 하늘에 풍년을 감사하고 번식을 비는 것에 복수의 관념은 없었을 것이다. 다음 두 인용문은 그 점을 가리킨다.

> 巫敎란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과 땅, 신령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생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원초적 종교현상이다.[15] (유동식)

> 무속은 현세를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세 긍정의 종교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보다 실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존의 종교다.[16] (서영대)

이렇게 보면, 무속은 작게는 현세에서 잘 살자는 현실적 종교이고 크게는 인간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 생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철학적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복수는 어디에 자리하는 것일까?

---

15)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347쪽.
16) 서영대, 「무당」,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2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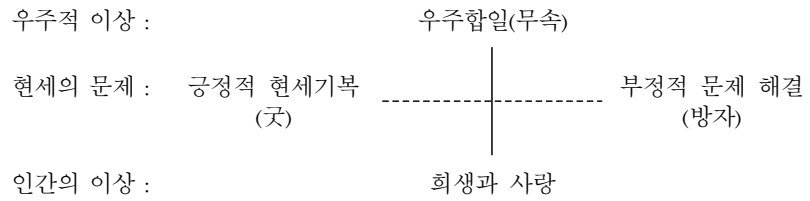
복수는 타인이 나에게 끼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그에게 되돌려 갚는 의지와 행동이다. 인간에게 복수는 거의 본능이라고 할만큼 뿌리 깊은 감정이다. '복수의 행동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분노를 표현하도록 진화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사회적 감정을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긴다."[17]는 말이 타당하다. 액셀로드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서 배신에 대하여 '당하면 갚는다(tit for tat)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식임을 밝혔다.[18] 살인이나 강도 등에게 복수함으로써 악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인식이 정립되어 악행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회의 질서 정립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보인다.

이렇게 근원적인 감정인 복수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기에 민속 대중의 문화에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민속에서 발달했다. 사람을 향하여는 복수의 형태를 띨 것이다. 무속 중에서 가장 저급한 것은 '방자'라고 해서 무고(巫蠱) 또는 저주하는 일이다. 이능화는 조선 궁중 내의 방자 사건을 들면서 그 앞에, "남의 집의 종이나 첩들이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으면 곧 새나 짐승, 썩은 뼈나 허수아비 등의 물건을 사용하여 온갖 술법을 꾸며서 담 밑이나 부엌과 굴뚝어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이 전염되도록 한다."[19]고 지적하였다. 원한에 대한 복수로 방자하는 일이 흔했다는 것이다. 무속이 복수에 관계되는 것은 방자뿐일 것이다. 굿은 재수를 빌고 명과 복을 얻어 잘살자는 것이지 원한을 갚거나 남을 해코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굿에서 불리는 노래에는 복수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방자는 뼈나 그림 등 어떤 형상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주하여 원한을 갚고자 한다면 무가에서의 복

17) 브라이언 보이드, 남경태 옮김, 『이야기의 기원』(휴머니스트, 2013), 430쪽.
18)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을유문화사, 2003), 342쪽.
19)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창비, 2008), 242쪽.

수는 그런 것 없이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행해진다.

앞에 인용한 유동식, 서영대의 무속관과 지금 보인 방자와 무가의 복수를 한 자리에 모아보자. 굿은 현세 구복의 의례이다. 재수를 빌어서 현재의 삶을 번창하게 하자는 것이다. 방자는 자기의 문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의례이다. 유동식이 말하는 바는 우주와의 합일이라는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성이다. 이를 표로 보이면 이와 같다.



이렇게 보면 굿, 무속의 세계는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주적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만, 인간 사이의 이상적 관계인 희생과 사랑의 관념을 생성하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수를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복수에서 벗어나기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이웃 사랑이나 자비의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불교가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유정승따님애기 무가는 제주도 무속에서 복수의 단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 무가는 심방의 조상이 된 유정승따님애기의 본풀이이다. 유정승따님애기가 그랬듯이 후대의 심방들도 같은 심사를 갖겠다고 한다. 심방이 되는 것을 '전생팔자를 그르친다'고 한다. 유정승따님애기가 죽어가는 아기를 되살아나게 한 것과 같이, 억울하게 펼쳐지는 자기 삶이지만

그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심방이 되어,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굿을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이 점은 심방의 입무의례인 신굿의 〈당주맞이(삼시왕맞이)〉에서 잘 드러난다. 〈당주맞이〉는 새로 심방이 되는 입무자가 유정승따님애기가 심방이 되기 위해 겪었던 것을 되풀이하는 의례이다. 문봉순은 2003년 12월 김윤수 이정자 부부의 신굿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주맞이〉에서 '꿇어앉아있는 신입무의 목을 광목으로 걸어 제상 앞으로 끌어들인다.'[20] 뒤에는 '제상에 올렸던 물 술 기타 제물을 조금씩 떠서 섞은 것을 신입무에게 먹인다.' 또 멩두 가운데 천문과 상잔을 심방의 어깨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는 〈초공본풀이〉에서 유정승따님애기를 "물명지 전대로 걸려올리렌 해연, 물명지 전대로 걸려다가, 상촉권상하여 부정서정 신개여 두고" 하는 것과, "약밥약술 멕연 인간더레 도환승을 시기며 에인(御印) 마칩데다. 타인(打印) 마칩데다."[21] 하는 사설을 의례로 풀어내는 것이다. 신입무는 이에 따라 유정승따님애기의 행적을 그대로 이어감을 보인다. "본주심방이 유정승따님아기가 했던 것을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하여 재현하는 것이다. 신화 속에 전개된 삼시왕맞이는 현실세계에서도 그대로 펼쳐진다."[22]

최초의 무당인 유정승따님애기의 행적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또 하나의 유정승따님애기가 된다는 것은 심방이 하는 일이, 유정승따님애기가 했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어쩌면 인생 일대사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심방 자신의 억울한 팔자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의 념은 사라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자신의 문제를 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사람들이 심방에게 바라는 것이 이 점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20) 문봉순,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경상대학교 대학원, 2005), 59~69쪽.
21) 이중춘 구연 〈초공본풀이〉,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47쪽.
22)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150쪽.

그것은 곧 자신의 복수를 심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소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무가 속에서 복수의 서사를 펼치지만 크게는 그 무가가 속한 굿을 통해서 우주와의 합일을 이루고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 초반부의 상황은 대단히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낯선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홀로 키워나가야 하는 여성, 부잣집의 여종으로 겁탈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아들까지 학대당하는 母子 이야기는 제주도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던 현실적 문제였다. 〈문전본풀이〉에서 본처와 첩의 갈등이 극렬하게 전개되어 살해에까지 이른다는 설정도 이해할만하다. 〈차사본풀이〉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살인을 하는 악한 여성과 염라대왕에게 죽은 자식을 살려내라고 오열하는 어미 또한 현실적으로 이해된다. 〈할망본풀이〉는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라나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 앞에서 설정된 이야기이다. 〈칠성본풀이〉 〈사만이본풀이〉는 신을 잘 모시면 잘 살고 못 모시면 해꽂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신앙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현실 문제였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의 전형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거나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제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본풀이를 듣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객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서사무가라는 문학적 틀 속에서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고 자기 문제를 객관화한다. 악인이 응징당하는 것은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응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주의 논리를 수용하면 자기가 스스로 복수를 감행해야 한다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방 자신은 유정승따님애기와 같은 팔자를 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제자로 거듭남을 인식하고 수용함으

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듯이, 심방이 부르는 서사무가를 듣는 단골들은 이야기 속 인물이 겪는 삶의 고난을 자기들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것이 해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안을 얻고 현실을 견뎌낼 힘을 얻는다고 생각된다. 장주근은 제주도의 본풀이 구연이 제의의 한 부분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화를 노래하는 것임을 적시하고 "특히 부녀층에서는 이들 본풀이에 단순한 흥미 이상의 깊은 애착과 믿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23]

이런 점에서 서사 본문에서는 삼형제가 양반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정승따님애기를 심방으로 만들지만, 사실 유정승따님애기는 자신이 심방이 된 이유를 모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 안다 해도 그가 신이기에 복수할 가능성도 없어보인다.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많다. 고려속요 〈청산별곡〉에 보이듯이, 누구를 맞히려고, 어디서 날아온 돌인지도 모르는데 돌에 맞아서 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에 분노하고 복수하려 할수록 인생은 더 망가진다는 역설에 빠진다. 삶의 비극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길에 유정승따님애기의 태도가 거울이 된다.

유정승따님애기나 바리데기가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신이 된 잿부기삼형제는 양반에 대한 복수를 위해 유정승따님애기의 팔자를 그르쳐 심방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인 유정승따님애기는 자기 팔자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뿐 복수라는 생각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제주도와 같이 남무가 많은 곳에서[24]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심방은 남성이어도 청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적 가치가 갈등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사고를 제

23)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민속학편력』(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민속원, 2013), 79쪽.
24) 추엽 융, 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 연구』(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51쪽.

주의 무속신화가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독교의 예수나 불교의 석가 등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남성인 점과도 대비된다. 사실 기독교나 불교나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여성 차별은 물론 존재했다. 〈마누라본풀이〉에는 그런 실상이 잘 드러난다. 마마를 주는 신인 대별상에게 생불할망이 아기 얼굴 곱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게 어떤 일이냐! 여성(女性)이라 하는 건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邪物)인데 남자 대장부 행찻길에 사망(邪妄)한 여성이라 한 게 왠일이냐? 괘씸하다."[25]고 소리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 자기희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불할망을 비롯해 여성의 몫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 거대종교로서의 체계를 갖춘 기독교나 불교가 중세적 사고방식을 노정해 남녀의 구분을 엄하게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 무속에서는 그 역할이 남성에게 넘어가지 않고, 아직 여성신의 역할이 그만큼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유정승따님애기 또한 병든 이를 구완하고 죽은 자를 인도하는 심방의 역할을 통해 전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돌봐 온 여성의 희생과 봉사를 기리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제주도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는 여성 거인신의 존재가 아직까지도 전승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듯하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들고 지켜온 창세신이자 거인신으로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런 거인 여신이 육지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여성 신화가 빈약한 편이지만 …… 제주도에는 여성신화가 풍부하다."[26]는 허남춘의 지적이 타당하다.

2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각, 2007), 105쪽.
26)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민속원, 2017), 29쪽.

Ⅴ. 유정승댁따님애기 서사의 의의

앞에서 〈바리데기〉 또는 〈바리공주〉 무가가 바리데기의 효가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고 했지만, 부모에게 버려졌으면서도 부모를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저승까지 가서 약을 구해온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커다란 가치를 제시한다. 복수의 반대편에 있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제시한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다. 동물에서 진화하며 인간이 서로에게서 평화를 발견한 것은 교역을 통해서였다. "교역을 개시하려면 먼저 창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27] 마르셀 모스는 원시사회들에서 교환-증여의 순환 관계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시키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시장가치를 넘어서 감정가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 모스는 마오리 속담을 인용한다. "네가 받은 만큼 주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매우 잘 될 것이다."(260쪽) 그 극단에 포틀래치가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상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하기 어렵다. 자기 재산을 모두 흩어버리는 포틀래치도 결국은 사람들의 존경이라는 가치 있는 교환을 바라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증여를 나카자와 신이치는 '순수증여'라고 부르자고 한다. 신이치는 순수증여의 본질을 "자신이 행한 증여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 마지막까지 모습을 감춘 채로 인간에게 뭔가를 계속 보내는 것이다."[28] 라고 정리한다.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자기 것을 내주는 것은 증여를 넘어선 것으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행위이다. 석가모니 전생담에서, 쫓기는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맹수에게 내어주는 행위로 설명되는 것

27)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한길사, 2002), 281쪽.
28)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동아시아, 2005), 68쪽.

이 그것이다. 바리데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자기를 죽음의 세상으로까지 몰아간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신의 지향성은 신적인 차원이어서 바리는 무조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다.

유정승댁따님애기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녀는 일곱 살부터 신병을 앓는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병을 앓으며 늙었으나 이웃에서 병들어 죽게 된 외동아이를 살려내고 불도땅으로 가서 '물멩지 전대(明紬戰帶)에 목을 걸려'[29] 무게를 다는 과정을 거쳐서 무당이 된다. 아무 잘못도 없이 신병을 앓고 죽어가게 되었던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무당이 된다. 무당이 되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기를 내어주어 남을 살리자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제주도 대다수의 본풀이에 보이는 복수담은 제주도민의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다.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진보하면서 사회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의 복수를 사회가 처리해달라고 넘겼다. 제주도는 조선의 통치를 받았지만 법치보다는 개인적인 복수가 더 만연되었을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유정승댁 따님애기 이야기나 바리데기 서사는 복수가 아닌 희생을 말하는 서사이다.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은 문명을 향하여 나가는 인류 집단에 공통적으로 출현했다. 유정승댁따님애기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 자비와 인, 사랑의 보편윤리는 문명권 단위로 출현한 것이기에 제주도의 사례를 진보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해서 유교나 불교 윤리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유정승따님애기 서사는 제주도에서도 이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49쪽.

<참고문헌>

『삼국유사』, 「기이2」, <處容郎 望海寺>條
『삼국지』「동이전 부여」, 이민수 역, 『조선전』.
강소전, 「제주도 심방의 멩두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
김운학 역, 『숫타니파아타』, 범우사, 1988.
김태계, 「조선시대의 人命에 관한 죄의 종류와 그 형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권 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김호,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 茶山의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4, 한국역사연구회, 2012.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 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8.
서영대, 「무당」,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2009.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이능화, 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창비, 2008.
이중춘 구연 <초공본풀이>,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민속학편력』,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민속원, 2013.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한서』「지리지」, 이민수 역 『조선전』, 탐구신서67, 탐구당, 1986.
E. 콘즈, 한형조 옮김,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 세계사, 1990.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3.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 한길사, 2002.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2005.
브라이언 보이드, 남경태 옮김, 『이야기의 기원』, 휴머니스트, 2013.
추엽 융, 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A Study on 'Revenge' in shamanism--Focusing on Bonpuri, Jeju Island

Shin YeonWoo*

As I read the general shaman epic of Jeju Island, I think that the narrative of <Yoo Jeong-seung's daughter> is a different story. In general, Bonpuri often concludes the story with the story of the good man suffering from the evil deed of the evil man and the revenge performed on the evil man. In that it does not take revenge, the narrative of <Yoo Jeong-seung's daughter> can be said to be a very exceptional setting in Bonpuri, Jeju Island. Using this contrast point as a stepping stone,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of Yoo Jeong-seung's daughter was examined.

Shamanism is a realistic religion to live well in the world, and it is a philosophical activity in which humans become one with heaven and earth to create life and culture. Where is revenge located here? Goot, the world of shamanism aim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world and further achieve cosmic ideals, but it has not reached the point of generating the ide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the idea of sacrifice and love.

It should be noted that <Yoo Jeong-seung's daughter> shaman epic shows that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overcome multiple stages in Jeju shamanism. A person who suffered from a new disease and died without doing anything wrong saves another person who has nothing to do with it, and he gives up his life and becomes a shaman. Being a shaman is to save others. It contains the idea of giving oneself away to save others.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Jeju Island is an island, so cultural development was relatively slow in the past. Most of the revenge stories in Bonpuri would have reflected the reality of Jeju residents. As history and culture progressed, society did not allow personal revenge. It was handed over to society to deal with individual revenge. Jeju Island was ruled by Joseon, but personal revenge may have become more prevalent than the rule of law. In the meantime, the story of the daughter of <Yoo Jeong-seung's daughter> and the story of the baridegi are narratives that tell sacrifices, not revenge. The idea of saving others at the expense of oneself appeared in common in human groups moving toward civiliza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story of the daughter of <Yoo Jeong-seung's daughter> originated in this process. Although Confucianism and Buddhist ethics were replaced by the East Asian civilization, it is meaningful to show that this process took place in Jeju Island.

Keywords: Jeju Island, shaman epic, Yoo Jeong-seung's daughter, revenge, sacrifices and love.

* 이 논문은 2024년 1월 8일 투고되어 2월 15일 심사가 완료되고
2024년 2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임.